

삼성 박해민 “도루왕 도전”

생애 첫 개막전 선발 출전...대포 2도루



“올해는 도루왕 타이틀에 한 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삼성 박해민(25·사진)이 단단한 목표를 품고 시즌을 시작했다. 지난해 이맘때에는 1군 엔트리 진입을 노려야 했던 그다. 올해는 다르다. 개막전부터 스타팅 멤버로 출전했다. 포부부터 크게 잡았다. 박해민은 “개막전부터 안타를 쳐서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열심히 달려서 도루 1위를 꼭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박해민은 지난해 삼성의 주전 중견수로 발돋움했다. 시즌 초반 인상적 활약으로 류중일 감독의 눈에 들었고, 중반부터는 꾸준한 중견수 자리에 불박이로 기용됐다. 타율 0.297, 36도루, 31타점, 65득점을 기록하며 제 몫을 했다.

그러나 올 시즌 시작 전부터 거센 도전이 직면했다.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구자욱(22)이 스프링 캠프 시작과 동시에 신데렐라로 떠올랐고, 발 빠른 외야수 박찬도(26)도 캠프 막바지부터 박해민의 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류 감독도 셋의 쓰임새를 놓고 고민해야 했다. 박해민은 “솔직히 처음에는 신경이 많이 쓰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일단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웠다”고 털어놓았다.

결국 개막전 중견수는 박해민의 차지였다. 그에겐 데뷔 후 처음 경험해보는 개막전이었다. 그런 데도 SK와의 첫 2연전에서 6타수 3안타 3득점으로 활약을 펼쳤다. 중요한 목표로 삼은 도루도 2개나 해냈다. 출발이 좋다. 물론 도루는 출루가 선행돼야 가능하다. 박해민이 “도루 이전에 출루를 많이 해야 목표도 이룰 수 있다. 어떻게든 많이 나가려고 애쓰겠다”고 말한 이유다. 올해는 공격에서도 지난해보다 더 팀에 기여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박철순, 스리랑카대표팀 지도

야구협회, 야구 저개발국 지원사업 일환

‘불사조’ 박철순(59)이 스리랑카야구대표팀을 지도한다. 대한야구협회는 31일 “스리랑카야구국가대표팀 지도를 위해 1일부터 박철순 코치를 현지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박철순은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24승을 거두며 다승왕과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던 살아있는 전설이다.

대한체육회와 스리랑카체육회의 양해각서(MOU)가 기록제가 됐다. 두 단체는 2014년천아시아인게임 동안 MOU를 맺고 국가대표선수 우호교류, 교환경기 실시와 합동프로그램 운영, 코치·심판 및 스포츠전문가 등 기술인력 교류, 인턴십 프로그램과 스포츠 장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스포츠교류에 합의했다.

야구협회도 일찌감치 아시아야구 저개발국에 스포츠외교 및 야구용품 지원과 지도자 파견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2015 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박 코치를 파견 대상자로 선정했다. 스리랑카 지도자 파견은 2012년 김정주 전 동의대 감독 이후 3년만이다. 박 코치는 스리랑카대표팀을 한 달여 지도한 뒤 5월 4일부터 10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제11회 아시안게임에 참가해 메달에 도전한다. 박성준 기자 spark47@donga.com

한국프로야구 난투사 발간



프로야구 현장의 에피소드를 담은 ‘한국프로야구 난투사’가 28일 발간됐다. KBO리그 출범 이후 그라운드에서 벌어진 다양한 충돌의 역사를 흥미롭게 담고 있다. 지은이는 홍윤표 OSEN 선임기자. 1982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1983년부터 일간스포츠에서 체육기자로 20여년간 일했다. 366쪽, 가격은 1만5000원.

인천 KIA-SK전 안개로 순연

31일 인천SK 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KIA-SK전이 짙은 안개 때문에 순연됐다. KBO는 “안개로 인한 경기 순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지만 감독관이 경기를 못할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감독관은 김재박 감독관이었다. 대전 두산-한화전과 마산 넥센-NC전은 우천으로 취소됐다.

이대호, 시즌 첫 홈런...3연속경기안타 행진

소프트뱅크 이대호(33)가 개막 4경기 만에 마수결이 홈런을 터트렸다. 이대호는 31일 후쿠오카 야후오쿠돔에서 열린 오릭스와의 홈경기에서 5번 1루수로 선발출전해 3타수 1안타 1홈런 1타점 2득점 1볼넷을 기록했다. 1-0으로 앞선 2회 선두타자로 나와 볼카운트 2B-1S서 오릭스 선발 니시 유키의 시속 137km짜리 직구를 잡아당겨 좌월1점홈런을 뽑았다. 3연속경기안타로 타율 0.231(13타수 3안타)을 기록했다. 팀은 7-0으로 이겼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손아섭 “아두치는 나보다 뛰어난 타자”



손아섭

비하인드 베이스볼 | 손아섭이 본 롯데 용병타자 짐 아두치

또 한명의 손아섭이라는 말에...“비교불가” 빠른 주루·장타력...“ML 벤치 멤버 맞아?” 불빛에 비해 많은 삼진...극복해야할 숙제

“손아섭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다”, “호세보다 더 잘할 듯하다”, ... 롯데 팬들에게 외국인 타자 짐 아두치(30)는 큰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외국인선수가 두려움 없이 몸이 부서져라 슬라이딩을 하고 다이빙 캐치를 하는 모습이 우선 놀랍다. 투지만 뛰어난 것이 아니다. 이제 갓 시즌이 시작됐지만, 개막 2연전에서 홈런 1방에 4안타 3도루를 기록할 만큼 그의 활약은 강렬했다.

같은 원손 타자인 데다, 타석에서 투지 넘치는 모습, 그리고 뛰어난 송구 능력까지 갖춰 롯데 팬들은 아두치를 향해 ‘또 한 명의 손아섭’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를 전해들은 이종은 롯데 감독도 “손아섭이 한 명 더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나”며 웃었다. 그러나 정작 손아섭(27)은 고개를 흔들며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골든글러브 수상자에 국가대표 주전 외야수, 그리고 리그 정상급의 타자임에도 외국인타자와 비교되기 기분이 나쁠까. 손아섭은 “아두치와 나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아두치가 모든 부분에서 나보다 뛰어난 타자다”고 평가했다.

●‘손아섭II’가 아닌 ‘손아섭+’!

손아섭은 지난해 122경기에서 175안타, 타율 0.362를 기록했다. 18홈런을 날리며 장타력에서도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다. 리그에서 3할대 후반의 타율에 20개 가까운 홈런, 30개 이상의 도루를 할 수 있는 타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그 중 한명이 손아섭이다.

이종은 감독은 올해 스프링캠프 시작 전 손아섭의 타순을 리드오프로 할지, 3번에 배치할지 고민했다. 1번과 클린업트리오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손아섭의 가치를 대변한다.

그러나 손아섭은 아두치를 ‘손아섭II’가 아닌 ‘손아섭+’라고 치켜세웠다. 높은 평가의 이유로 장타력과 주루 능력을 꼽았다. 시즌 36도루(2013년)를 기록한 적이 있는 손아섭이지만, 그의 눈에도 아두치는 정말 빨랐다. 장타력은 그렇게 뛰어난 유형이 아닐 것으로 예상됐지만, 적어도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 개막 2연전에서만큼은 큼직한 타구를 평평 쏘아내고 있다.

손아섭은 “통역을 불려서 아두치에게 말했다. ‘당신 같은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주전으로 뛰지 않겠다는 것이 놀랍다. 미국야구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더라. 파워도 뛰어나고, 스피드도 정말 좋다. 계속해서 많이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주는 어디까지 계속될까?

아두치의 메이저리그 경력은 화려하지 않다. 2013년과 2014년 텍사스에서 뛰었고, 61경기에서 132타수 25안타(타율 0.189) 1홈런 5도루에 그쳤다. 마이너리그에선 9년 동안 902경기를 뛰었다. 최근 성적을 살펴보면, 2013년 트리플A에서 127경기 141안타(타율 0.298) 16홈런 65타점 32도루를 기록했다. 메이저리그에 올라갈 만한 좋은 성적이다. 단, 전형적인 슬러거 스타일이 아닌데도 볼넷 65개에 비해 삼진이 107개로 많았다. 2010년에도 트리플A에서 114경기를 뛰었는데, 볼넷 27개에 삼진 80개였다.

KBO리그는 현미경처럼 자세히 선수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미국야구에 비해 유인구가 많다. 지난해 두산 호르헤 칸투는 18홈런을 터트렸다. 그러나 후반기 홈런은 단 1개에 불과했다. 떨어지는 체인지업에 약한 핸디캡이 파악됐고, 상대팀들은 이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올 시즌 아두치가 극복해야 할 숙제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아두치

물 고인 대전구장



한화 김성근 감독의 출경기 데뷔로 관심을 모았던 31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의 두산-한화전이 우천 취소됐다. 마산 넥센-NC전과 문학 KIA-SK전도 잇달아 순연됐다. 이날 대전구장 홈플레이트와 마운드에는 경기 취소에 앞서 방수포가 깔렸다. 대전 | 뉴스스

김성근 감독 “까다로운 한화, 인식 심을 것”

개막 2연전 ‘도루 6개’ 뛰는 야구로 변신 ‘약하면 집중공격 당해...4월 승부가 중요’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한화는 과연 올 시즌 달라질 수 있을까. 이제 2경기를 치렀을 뿐이지만, 긍정적인 신호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넥센과의 개막 2연전에서 6개의 도루를 기록하며 ‘뛰는 야구’를 펼쳤고, ‘불펜 야구’도 희망을 줬다. 몇 차례 아쉬운 수비 장면도 나왔지만, 실책 0개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김성근 감독(사진) 역시 긍정적 평가를 했다. 31일 두산과의 대전 홈 개막전이 우천으로 취소된 뒤 취재진과 만난 김 감독은 “선수들에게 모티ベーション(동기부여)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다. 그 점이 가장 큰 수확이다”며 개막 2연전의 가장 큰 성과로 ‘팀 분위기’를 꼽았다. 그는 “시범경기에서 전력을 다하지 않았지만 선수들 사이에서 ‘안 되는구나’라는 의식이 생길 수도 있었다.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하



나’ 신경 쓰였는데, 야구를 활발하게 하다 보니 팀에 생기가 들었다. 개막전에 졌지만 연장 12회까지 간 게 좋았다. 이전 같았으면 쉽게 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는 개막 2연전에서 4번타자 김태균까지 여러 차례 도루를 시도(실제로는 타자의 파울로 귀부)하는 등 전 선수가 틈만 나면 필테세를 보였다. 지난해 팀 도루 70개로 롯데와 더불어 가장 적었던 ‘곰벙이 군단’의 대변인이었다. 김 감독은 “승부의 세계에서 약하면 집중공격을 당한다”며 “상대방에게 우리 팀이 까다롭다는 의식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로선 4월 승부가 무지무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감독은 어깨 통증으로 개막 2연전에 빠졌던 송광민을 이날 1군 엔트리에 등록했다. 부상병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시그널이다.

대전 |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NC 김경문 감독 “반갑다, 비야”

개막 2연전 패...우천취소 분위기 전환 박민우 가벼운 부상...휴식으로 재충전

31일 마산구장에서 예정됐던 넥센-NC전은 비로 연기됐다. NC로선 홈 개막전이 열리지 못해 아쉬웠다. 개막전을 기다리던 팬들도 많았다. 사전 예매가 7000장이나 될 정도로 홈 개막전을 보고자하는 팬들의 열기가 높았다. NC 김경문 감독(사진)도 “팬들이 개막전을 보기 위해 많이 예매를 한 걸로 아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팀으로는 나쁘지 않은 비였다. 김 감독도 우천순연을 반기는 마음이 있었다. NC는 28~29일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두산과의 개막 2연전에서 내리 패했다. 김 감독은 “이제 2경기 했을 뿐”이라며 개의치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지만, 산뜻하게 출발하지 못하면서 팀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김 감독도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이런 비가 도움이 될 때가 있다. 하루쯤은 쉬어도 된다”며 웃었다.



단순히 분위기 전환 차원만은 아니다. NC는 현재 정상 전력이라 아니다. 팀의 핵심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박민우가 29일 잠실 두산전 7회 수비 도중 김현수의 타구를 잡으려고 다이빙캐치를 하다가 왼손 엄지 손가락이 꺾이는 부상을 당했다. 병원 검진 결과 큰 이상은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경기 투입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김 감독은 “괜찮다고 들었다. 근육이 놀란 정도지만, 출전 시기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주자로의 활용이 가능하지만, 선발출장의 경우 타격이나 수비훈련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NC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당연히 비가 반가운 수밖에 없다. NC 선수들은 내리는 빗줄기 속에서 모든 훈련을 소화하며 전의를 불태웠지만, 훈련 뒤에는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꿀맛 같은 휴식을 즐겼다.

마산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